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무용분야 지원심의평

무용 분야

- 일정 및 장소 : (1차)7.12(수), (2차)7.19(수)/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정학, 문영, 심정민, 안신희, 이송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지원사업은 역대 창작산실(창작팩토리 포함) 선정작과 초연을 마친 국내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우수한 창작공연이 일회성 지원으로 사장되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공연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작공연 레퍼토리 육성 및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존 작품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창작산실(창작팩토리 포함) 지원사업을 통해 초연된 작품에 대해서는 우대한다.

2017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2차 무용부문에는 6월 8일부터 23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총 14개 작품이 신청하였다. PT 및 인터뷰 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서류 심의는 2017년 7월 11일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무용계 각 부문의 5인의 심의위원이 창작의도 및 소재, 시놉시스 및 대본, 안무(연출) 및 무대, 예산 및 일정계획, 참여인력, 홍보마케팅뿐 아니라 작품실적과 창작산실 여부 등의 기준 항목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필수제출 항목 중에서 대관계약이 전혀 진척되지 않았거나 공연영상(10분 이상)이 미흡한 5개의 작품에 대해서는 배제하였다.

다양한 예술 경향과 창작 스타일을 작품들이 치열한 경쟁을 보인 가운데, 본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필수제출 항목을 충족하는 못한 작품들을 여러 있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위의 기준 항목을 근거하여 내용적으로도 창작산실의 취지, 작품의 완성도, 재공연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의 작품에 대해 PT 및 인터뷰 심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PT 및 인터뷰 심의는 2017년 7월 19일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에서 서류 심의를 거쳐 선별된 6개 작품을 대상으로 심도있게 전개되었다. 각 15분 내외로 소요된 PT 및 인터뷰 심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우선, 해당 작품이 대표 레퍼토리로서 가치를 지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작품성, 기획의도, 연출 및 안무, 재연의 가치, 관객과의 소통, 무용계 기여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였다. 두 번째, 각 안무가의 예술적 성향과 창작 역량을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레퍼토리인가라는 점 역시 고려 사항이었다. 안무가의 예술성과 창작력은 인정되는 바이나 신청 레퍼토리의 가치가 그의 대표 레퍼토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는 지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해 동일 지원사업의 1차와 2차에서는 같은 레퍼토리로 신청하지 못하는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부 있었다.)

세 번째, 레퍼토리 재공연 지원사업에 취지와 성과를 고려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일 계획인지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보완을 거쳐 업그레이드시킬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졌다. 네 번째, 지원 서류에 제시한 예산이 적절한지 여부 또한 고려하였다. 작품의 규모나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예산을 제시하는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졌다. 다섯 번째, 관객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작품의 예술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적인 설득력이나 수용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서류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PT 및 인터뷰 심의 역시 심사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최종 4개의 작품에 대해 지원 선정을 하였다. 한 선정단체의 경우 1차에 다른 작품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선정으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기(철회)한 관계로 이번 심의에서 별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단계로서 총 지원 예산과 배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사전에 총 지원예산이 1억2천1백만 원임을 고려하여 3-4개정도의 작품을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최종적으로는 무용계의 창작 레퍼토리 활성화를 위해 4개의 작품을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 절차로서 각 선정작에 대한 지원예산 책정이 있는데, 해당 작품의 기존 성과와 연출 규모뿐 아니라 안무가의 기여도와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4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까지 차등하여 책정하였다.

2017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2차 무용부문은 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창작단체들이 각기 다양한 예술적 성향을 지닌 대표 창작물로 신청하였다. 특히 대관 극장을 살펴보면 기존의 아르코예술극장이나 대학로예술극장을 벗어난 여러 무대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서류 심의에서는 기존 항목과 더불어 창작산실의 취지, 작품의 완성도, 재공연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에 있어 기존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PT 및 인터뷰 심의에서는 작품성, 기획의도, 연출 및 안무, 재연의 가치, 관객과의 소통, 무용계 기여도 등을 통해 앞으로 재연될 레퍼토리에 심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두 번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 간 별다른 이견 없이 최종 작품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심의 당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획이나 수정·보완된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있었던 바, 차후 재연될 레퍼토리에 대한 성과를 기대케 한다.

심의회원 일동